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8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8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38군부대를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5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3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받으시고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여 부대를 필승불패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리였으며 조국방선을 굳건히 지켜 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군인회관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부대의 전투기록을 보시고 군부대군인들이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오늘도 조국보위성전에서 위용 떨쳐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선렬들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신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어느 부대에 가보나 우리 군인들은 생활을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러운 면모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대에서만이 창조될수 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이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구분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용철제1부부장이 동행하였다.

카스트로, 김정일국방위원장 60회 생일축하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을 축하하고 양국간 유대 강화를 요구했다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5일 전달된 축하 메시지에서 카스트로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큰 성공과 건강, 행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카스트로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이 제국주의 강대국의 적대행위를 저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을 이끌면서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의 감탄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또 ≪나는 이번 기회에 양국 국민과 정당, 정부 사이의 상호 유대와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동정

1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38군부대를 시찰
1 단신 – 카스트로, 김정일위원장 60회 생일 축하

노작

2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세기와 더불어

4 1장 5절 ≪압록강의 노래≫ (1)

칭송

6 입북어민들의 감격 (2) / 기다림
6 김정일동지의 영도사는 승리와 영광의 역사

7

한국민족민주전선

7 부시망발 용납할수 없다
7 구국의 소리 뉴스(주체91 2월 6일)
8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8 단체들, 부시의 대북강경망발을 규탄성명발표
9 민족자주통일염원실현에 한사람같이 나서자
9 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국보법≫철폐하라
9 못된 놈은 사라져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년 2월 6일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조직영도

13

아리랑뉴스

12 ≪부시 발언 반대≫ 미국교민들도 나섰다
12 불교계 17개 단체, 부시 방한 관련 시국선언
13 ≪동맹의 허상≫을 짚을 때다
14 8. 15 방북대표단에 유죄선고
14 아리랑축전 참가로 상이군경이 민족화해에 앞장설 터

운동강좌

15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의 차이에 대하여 (2)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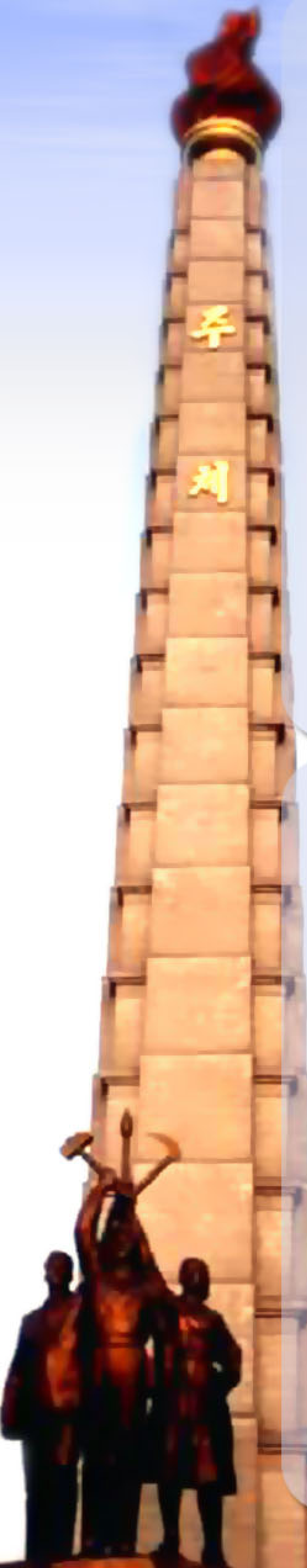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5 인터넷 애국의 길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1)

주체77(1988)년 9월 15일



오늘 혁명의 전반적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반 사태를 분석하여 보면 비단 우리 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할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현정세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며 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 역사적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를 옳게 평가하고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현대 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전패국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국측의 자본주의 열강들도 전패국들에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자본주의는 심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았으며, 급격히 비대해졌습니다. 미국은 전쟁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파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업생산이 2배이상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전쟁기간에 미국은 연합국들에 대한 무기와 군수물자의 공급자로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잉여상품을 비싼 값으로 실현하여 막대한 폭리를 얻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계기로 하여 세계최대의 채권 국가로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의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독점자본가들 앞에는 엄청나게 확장된 군수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한 막대한 잉여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확장된 군수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었으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간판 밑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냉전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름아닌 트루만주의였습니다. 다른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 공황을 모면하고 잉여자본을 처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원조라는 미명 밑에 구라파의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 자본을 투자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를 틀어쥐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샬안≫이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같이 하여 자본주의 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통제 밑에 넣게 되었으며 장성하는 사회주의 역량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정책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독점자본은 발전된 기술과 우세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자본의 대외진출을 강화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 새끼회사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다국적 기업체들이 많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다국적기업체들이 자본주의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체들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 나라들의 호상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자본주의 열강들이 상품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그것은 파괴적인 무장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자본주의열강들의 격화된 모순과 대립의 폭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 열강들은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열강들이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꺼꾸러뜨리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소모하였다면 이 때부터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 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넘어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열강들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기 그 모순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고 오히려 결탁관계가 주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 동안에 170여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어 군사블럭을 통하여 자본주의 열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화됨으로써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는 되살아나게 되었으며 경제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결탁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치수법과 약탈방법도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현대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역량의 급격한 장성과 노동운동,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앙양에서 커다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무마하기 위하여 보다 교활한 , 새로운 통치수법과 약탈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노동운동을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유지할 숭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제국주의자들은 노동귀족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자본주의적 착취를 은폐하고 실업과 빈궁으로 인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를 약탈하는 방법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를 약탈하는 데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민족해방운동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식민지 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제국주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기위해 신식민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노골적인 강압적인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약탈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도 발전도상국나라들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해주고 이른바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였습니다.

신식민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전도상나라들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난날에는 식민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신식민주의에 의거하면서부터는 공조결탁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게 되고 특히 원조를 미끼로 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시킴으로써 손쉽게 상품시장과 원료자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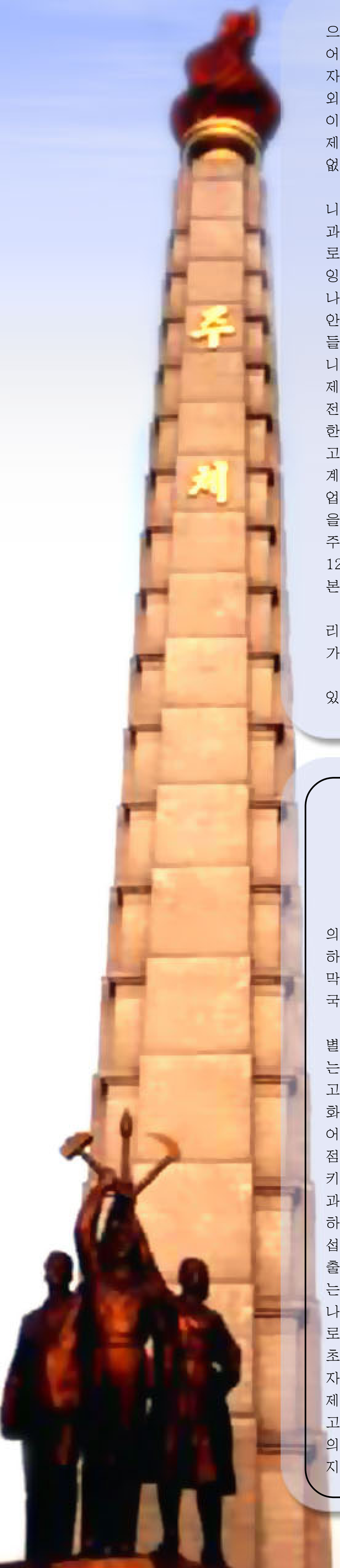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결탁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방대한 시장과 원료자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생산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는 제국주의대변자들에게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해결되고 자본주의가 더는 죽어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장성하고 번영하는 자본주의라고 떠벌일수 있는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며 제국주의의 약탈적 본성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자본은 아무리 국제화되어도 자본 외의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약탈방법이 보다 교활해진 것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로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착취로 말미암아 지난 시기에는 매개 자본주의나라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배하였다면 이제와서는 세계가 부유한 자본주의나라들과 가난한 발전도상나라들로 갈라져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지적 착취와 약탈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산업은 더욱더 몰락되고 인민들의 빈궁화가 한층 심화되었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출로는 무엇보다도 발전도상나라들을 신식민지주의적 방법으로 착취하고 약탈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 이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으며 이 나라들의 대외채무는 날을 따라 늘어나게 되였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줄어들고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이 약화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을 희생시켜 살쪄온 제국주의열강들에게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품시장과 자본투하지로서 한계에 부닥치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잉여상품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였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차관을 점점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을 서로 제한하도록 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생산을 제한하다보니 실업자 대열이 늘어나고 통화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오늘 구라파의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업률이 12~13%에 이르고 있으며 통화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국의 처지가 날로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자본주의열강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여온 지배적 지위를 점차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과 일본의 경제가 발전되어 미국의 경제적 지배권이 약화됨에 따라 미제국주의들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며 팽창된 대군수독점체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예산의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대외채무가 늘어나게 되였으며 마침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부터 최대의 채무국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수독점체들이 군수산업을 계속 확장하여 더 많은 이윤을 짜내려고 하는 조건에서 경제의 군사화를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핵무기축감을 위한 협상에 응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미국독점체들이 군수산업을 확장하려는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군수독점체들은 이미 생산하여 판매한 핵무기를 축감하는 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핵무기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핵무기감축을 위한 협상에 응하면서도 수만억달러의 방대한 군사비가 든다고 하는 모험적인 별세계전쟁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늘어나는 방대한 군사비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예산적자와 대외채무는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경제를 헤어날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출로는 무엇보다도 발전도상나라들을 신식민지주의적 방법으로 착취하고 약탈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 이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자연부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발전하여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시장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이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착취적 본성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 데 대한 발전도상나라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식민지주의적 착취와 약탈에 계속 매달리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국주의열강들 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열강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 있지만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그들 사이에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모순이 격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지면 승냥이들끼리 서로 물고 뜯기 마련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정치사전

현대제국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신식민주의에 의거하고 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재편성되고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제국주의

현대제국주의는 지난 날의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제국주의는 무엇보다도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독점체들은 국가권력을 틀어 쥐고 부르죠아정치제도를 파쑈화하며 독점자본의 힘과 국가권력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로 나간다. 대독점체들은 경제명맥과 국가권력을 틀어 쥐고 국가기구를 리용하여 나라의 정치경제생활에 전면적으로 간섭하며 심화되여 가는 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에서 찾는다. 대독점들이 경제와 정치를 틀어 쥐고 나라의 대내외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된 바로 여기에 현대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초가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는 마지막 지탱점이다.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침략과 식민지지배도 제국주의의 근본속성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식민지지배의 형태와 수법은 사회력사적조건의 변화와 함께 달라 진다.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여 제국주의식민지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여 가자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를 공공연한 방법으로서 아니라 식민지나라들에 《독립》을 주고 괴뢰들을 내세워 은폐된 형태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는 신식민주의길로 나라고 있다. 신식민주의는 통치수법에 있어서 구식민주의보다 더 교활하고 음흉하다. 현대제국주의는 다음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재편성되여 있다. 제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제국주의렬강들가운데서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일본은 패망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훨씬 약화된 반면에 미제는 급격히 비대해 지고 경제, 군사적으로 팽창하였다. 미제는 자기의 힘이 강대해 지고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이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자본주의세계를 틀어 쥐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 놓게 되었다. 한편 지난 날의 세력권을 빼앗기고 심히 약화된 제국주의나라들은 미제에 붙어서라도 무너져 가는 통치체제를 지탱해 보려고 시도하게 되였다.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제의 침략적야망과 미제의 비호밑에 무너져 가는 통치체제를 유지해 보려는 제국주의나라들의 지향은 서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재편성되게 되였다.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에만도 여러차례의 경제공황을 겪었으며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거세찬 투쟁에 계속 부딪치고 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오늘 미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얻어 맞고 있으며 계속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다른 제국주의자들도 날을 따라 더욱 궁지에 빠지고 있으며 쇠퇴몰락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림종에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할 방도를 국제긴장상태의 격화와 새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더욱더 위험한 모험의 길로 나가고 있다. 현대제국주의가 최후발악하지만 궁지에서 결코 벗어 날수 없다. 현대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다.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5. ≪압록강의 노래≫

1923년초에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고 이제는 소학교를 졸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나는 상급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하고싶다고 말씀드리었다. 나를 상급학교에 보내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부터 품어온 소망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장래에 대한 포부를 물으니 나로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심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부터는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였다.

그 말씀 역시 나한테는 뜻밖이었다.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려면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야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놀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데 가까운 고장에 보내면 안되겠는가고 물었다.

아버지는 이미 결심이 확고히 서있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허전하더라도 성주를 기어이 조선에 내보내야겠다고 거듭 말씀하였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한번 내놓은 말을 리유없이 거두는 법이 없었다.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제 다시 조선에 나가면 그보다 더 큰 고생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너를 조선에 내보내자고 결심하였다.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네가 조선에 나가서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만 똑똑히 알아도 그것은 큰 소득이다,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걸 체험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할 바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리었다. 당시로 말하면 조선에서도 돈냥이나 있는 집 자식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외국류학의 길에 오르던 때였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풍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니 모두가 외국행을 할 때 나는 조선행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아주 독특하였다. 나는 지금에 와서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조선에 내보내준 것이 옳은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열두살도 되지 않는 자식을 당시는 무인지경이나 다름없었던 천리길에 홀로 내세운 것을 보면 보통성미가 아니였다. 그 성미가 오히려 나에게는 힘으로 되고 믿음으로 되었다.

사실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였다. 조국에 나가서 공부하라니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부모동생들의 곁을 떨어지는 것이 싫었다. 그렇지만 고향에 가고싶은 생각은 불같았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떠나고싶지 않은 미련이 검질기게 교차되는 복잡한 심리의 파동속에서 나는 들뜬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날씨라도 좀 따스해진 다음에 보내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였다. 아직 어린 자식을 천리길에 홀몸으로 내세우자니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천리길을 가야 할 내 앞길을 은근히 걱정하면서도 아버지가 계획한 날자에 나를 떠나보내려고 밤을 세우며 두루마기와 버선을 지었다. 아버지가 일단 결심한 문제였으므로 어머니도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떠나갈 날이 다되자 아버지는 나에게 팔도구에서 만경대가 천리인데 혼자서 갈수 있는가고 물었다. 나는 갈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 목책에 로정도를 그려주었다. 후창에서 아무데, 화평에서 아무데, 어데 어데까지 그리고 그 어간이 몇리라는 것도 써주고 전보는 두번 치되 한번은 강계에서 치고 한번은 평양에서 치라는 것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내가 팔도구를 떠나던 날은 음력 정월 그믐날(양력 3월 16일)이었다. 아침부터 눈보라가 일고 바람이 사납게 불었다. 그날 팔도구에서 사는 동무들이 나를 바래주느라고 압록강을 건너 후창남쪽까지 30리를 따라왔다. 길동무를 해준다고 하면서 한정없이 그냥 따라오기에 겨우 설복해서 돌려보냈다.

막상 길을 떠나고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야 할 천리중 500리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었다. 그 험한 산악들을 단신으로 넘는다는 것이 헐치 않았다. 후창에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길 량옆의 수림들에서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었다.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퍼그나 했다. 직고개나 개고개(명문고개)와 같은 고개를 넘을 때는 정말 혼이 났다. 오가산령은 하루종일 넘었다. 아무리 걸어도 고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군 하였다.

오가산령을 넘고나니 발이 다 부르텄다. 다행히도 그 령밑에서 어떤 로인이 나를 붙들고앉아 발바닥에 성냥으로 딱총을 놔주었다. 월탄을 거쳐 오가산을 넘은 다음에는 화평, 혹수, 강계, 성간, 전천, 고인, 청운, 회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 이르러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경대로 나왔다. 개천에서부터 신안주까지는 협궤철도가 놓여있었는데 ≪니끼샤≫라는 자그마한 영국제 기관차가 끄는 경편렬차가 다니었다. 신안주에서 평양까지는 지금과 같은 광궤철도가 부설되어있었다. 그 당시 개천에서 평양까지의 차표값이 1원 90전이었다.

나는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한번은 발이 너무 아파서 어떤 농민의 발구를 얻어탄 일이 있었다. 헤어질 때 값을 치르려고 돈을 내놓으니 농민은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나에게 엿을 사주는 것이었다.

강계객주집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강계객주집 주인이었다.

저녁늦게 강계시에 도착하여 객주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대문밖까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었다. 하이칼라를 하고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사근사근하고 붙임성이 좋았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친 전보를 받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를 ≪김선생≫, ≪김선생≫하면서 존경해온 이 객주집의 할머니도 나를 보자 4년전에 아버지를 따라 중강으로 들어갈 때는 조그마했는데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친손자라도 만난것처럼 기뻐하였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놓은 소갈비국도 끓이고 청어도 구워서 자기집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먹이지 않고 나한테만 주었다. 밤에는 새로 꾸민 이불도 내놓았다. 주인들이 그때 정말 나를 위해 있는 성의를 다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강계우편국에 가서 아버지가 일러준대로 팔도구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보를 쳤다. 전보문 한자에 3전이었는데 여섯자가 넘으면 1전식 더 받는다고 하여 전보용지에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글자를 써넣었다. 이틀날 객주집주인은 나를 차에 태워보내려고 자동차사업소에 갔다왔다. 그는 차고장으로 열흘쯤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 신청은 해놓았으니 친척집에 온셈치고 그동안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진정이 고마왔지만 빨리 가야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도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짚신 두켤레를 주면서 개고개쪽으로 가는 달구지군까지 한 사람 물색하여 붙여주는 것이었다.

개천역앞에 있던 서선려관 주인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 려관에 들자 15전짜리 밥을 청하였다. 려관밥도 등급이 있었는데 이 려관에서는 15전자리가 제일 눅거리었다. 주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50전짜리 밥을 주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50전짜리는 못먹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돈이 없어도 그냥 먹으라고 하였다. 밤이 되자 려관에서는 손님들에게 포단과 모포 두장씩을 내주고 50전 정도 받았다. 수중에 있는 로비를 계산해보니 모포를 두장씩이나 덮고 호강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포를 한장만 달라고 하였다. 주인은 이번에도 다른 손님들이 다 포단을 깔고 모포를 두장씩 덮고 자는데 너 혼자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돈을 안내도 되니 마음놓고 받으라고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어 어렵게 살았지만 조상전래의 인정과 미풍량속만은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금세기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무전려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 집이나 마을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 조선의 풍속이었다. 이런 풍속에 대해서는 서양사람들도 몹시 부러워하였다.

나는 천리길을 걸으면서 조선민족이 참으로 선량하고 도덕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서선려관 주인도 강계객주집 주인이나 중강려인숙 주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지도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였다. 여덟살적에 중강으로 들어갈 때에도 느낀바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이처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친지들이 어디에 가나 있었다.

나는 우리 일가를 친혈육처럼 맞이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 많은 친구들을 언제 다 사귀였을가, 저런 동지들을 얻느라고 걸음인들 얼마나 많이 걸었을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방에 친구들이 있으니 객지에 나서도 아버지는 이모저모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도 그들의 덕을 단단히 보았다.

천리길을 걸을 때의 인상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

강계우편국

는 것은 4년전까지 등잔불을 켜고 살던 강계시내에 전등불이 환한 것이었다. 강계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였지만 나는 왜색이 짙어가는 거리풍경을 보고 쓸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조국에 나를 내보내면서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한 아버지의 참뜻이 마음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었다. 나는 그 뜻을 되새기면서 비운에 잠긴 조국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

팔도구에 떠난지 열나흘만인 1923년 3월 29일 해질무렵에 나는 마침내 고향집뜨락에 들어섰다. 아래방에서 물레질을 하던 할머니가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누구하고 함께 왔니?≫

≪무얼 타고 왔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잘 있느냐?≫

할머니는 나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물었다. 방에서 멍석을 틀던 할아버지도 밖으로 뛰어나왔다.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왔다는 나의 대답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아니, 네가 정말 혼자서 왔단말이냐! 너의 아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람이구나!≫하고 혀를 찼다. 그날은 온 집안이 모여앉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밤을 새웠다. 산천은 예나 다름없이 유정하고 아름다왔건만 마을의 구석구석에서 내비치고 있은 가난의 자취는 이전보다 더 두드러져보이었다.

나는 만경대에 며칠간 머물러있다가 외할아버지가 교감으로 계시는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되어 조국에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때부터는 칠골외가에 가있으면서 학교를 다니었다.

당시의 외가는 사실 내가 얹혀살 형편이 못되었다. 외가에서는 그때 강진석외삼촌의 일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외삼촌이 잡혀서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부터 경찰들의 감시와 성화가 심해진데다가 옥중에 있는 외삼촌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온 일가가 몹시 상심하고 있었다.

외가의 살림살이 역시 타개죽이나 비지밥으로 그날그날을 겨우 연명해가는 형편이었다. 둘째외삼촌은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우차몰이까지 하면서 가까스로 생활고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외가에서는 내앞에서 가난티를 조금도 내지 않고 내가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잘해주었다. 나를 위해 안채의 웃방을 따로 내주고 거기에 남포등도 걸어주고 돗자리까지 깔아주었다. 내 동무들이 셋씩넷씩 무리를 지어 때없이 찾아들어도 탓하지 않았다.

창덕학교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칠골일대의 선각자들이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조류를 타고 국권회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세운 경향성이 좋은 사립학교였다.

구한국말기와 ≪한일합병≫후 우리 나라에서는 구국투쟁의 일환으로 애국적인 교육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국권상실의 수치스러운 본원이 나라의 후진성에 있다는 것을 눈물겹게 통감한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교육이야말로 자강의 기초이고 근본이며 교육을 발달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도처에서 사립학교운동을 벌이었다.

이 운동의 앞장에는 안창호, 리동휘, 리승훈, 리상재, 유길준, 남궁억과 같은 애국적인 계몽운동자들이 서있었다. 각지방에 조직되어있는 학회들도 교육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었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던 교육문화운동의 열풍속에서 수천개의 사립학교들이 태어나 봉건의 구속에서 잠들고 있던 이 나라의 지성에 불을 달아주었다. 공자, 맹자의 교리를 가르치던 서당들이 신식학문을 배워주는 학당이나 의숙으로 개편되어 후대들에게 애국의 정신으로 분발하라고 부르짖은 것도 이무렵이었다.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은 례외없이 교육을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삼고 거기에 온갖 재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었다. 테로를 독립운동의 기본방책으로 틀어쥐고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배후에서 끊임없이 조종해온 김구도 초기에는 황해도일대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였다. 안중근도 남포지방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후대들을 가르친 선비였다.

서선지방에 설립된 사립학교들가운데서 유명한 것은 안창호가 주관한 평양의 대성학교와 리승훈의 개인자금으로 세워진 정주의 오산학교였다. 이 학교들에서는 이름난 독립운동자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외할아버지는 창덕학교에서 안중근과 같은 인물이 한명만 나와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애국자가 되라고 하였다. 나는 안중근과 같은 유명한 렬사는 못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애국자가 되겠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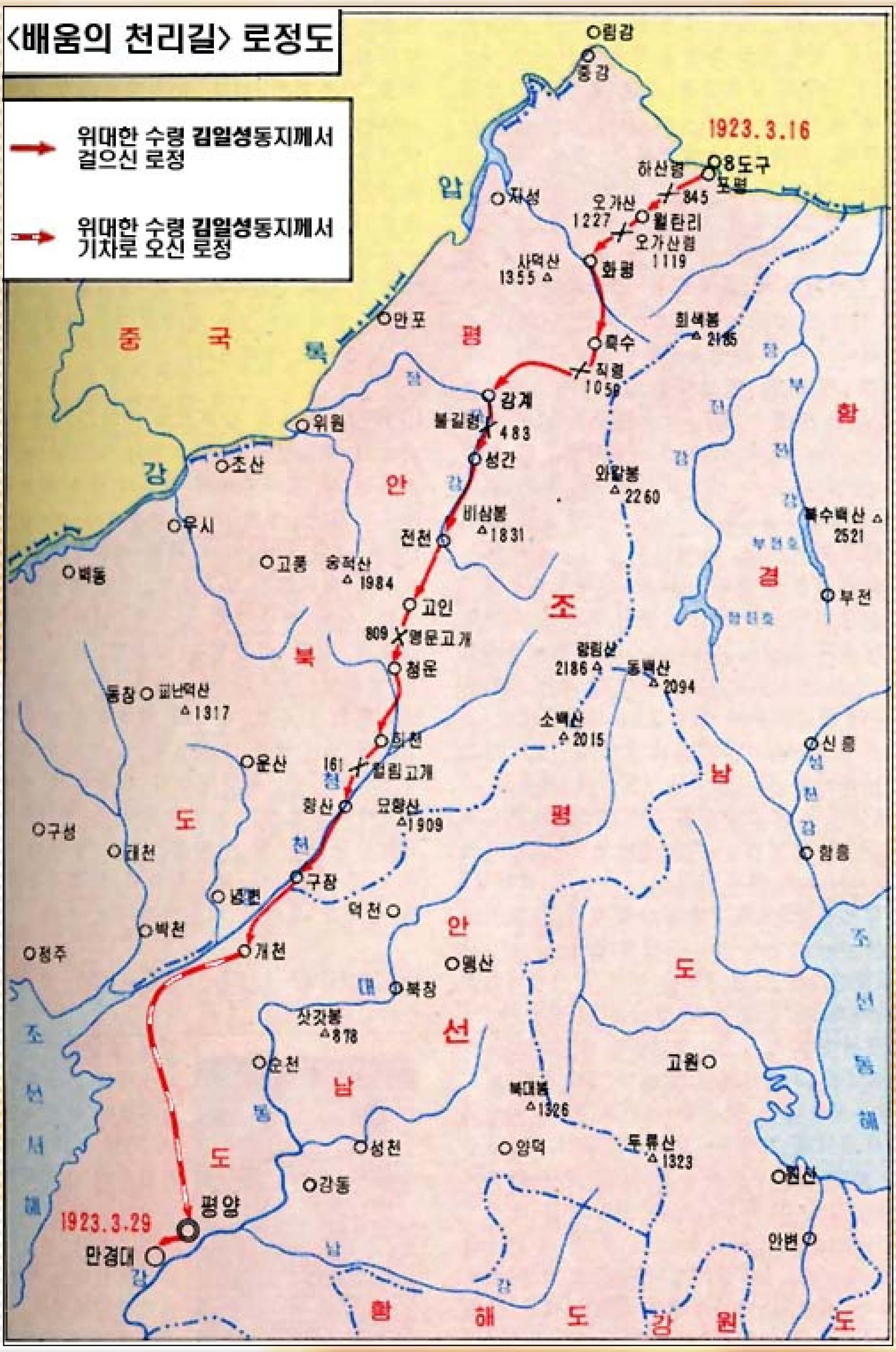
창덕학교는 서선지방의 사립학교들가운데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학교로서 학생수가 200명이상 되었다. 당시로서는 작은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거점으로 주변인민들을 빨리 계몽시킬수 있었다. 그러므로 평양지방의 인민들과 유지들은 창덕학교를 매우 중시하였고 여러모로 이 학교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백선행도 창덕학교에 거액의 자금을 희사하였다. 본명보다도 백과부라고 많이 불리운 그는 해방전에 평양에서 자선사업으로 이름이 높던 녀자이다. 스무살전에 과부가 된 그는 80고령이 될 때까지 수절하면서 한푼두푼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 치부방법이 아주 대담하고 독특하여 일찌부터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오늘날의 승호리세멘트공장소속의 석회석광산 부지도 한때는 백선행의 땅이었다고 한다. 그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돌박산을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일본자본가들에게 본전의 몇십배가 되는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 것이 바로 오늘의 승호리세멘트공장에 속해있는 석회석광산부지라고 한다.

문서장 한장으로 국토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역신들에 대한 원성이 구천에 사무칠 때 수판알도 튀길줄 모르는 평범한 녀성이 장사속이 밝은 일본자본가들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폭리를 얻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문을 일종의 전승무훈담처럼 통쾌하게 들었다.

사람들이 백선행을 존경한 것은 그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수중에 돈이 많았지만 그는 부귀영화를 조금도 탐내지 않고 조반석죽의 수수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두고 저축해온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었다. 그 돈으로 다리도 놓고 공회당도 지었다. 백선행이 지은 평양공회당 건물이 지금도 련광정앞에 원상그대로 남아있다.

(내일 계속됩니다)



일화

입북어민들의 감격 (2)

입북어민환영공연은 평양대극장에서 베풀어졌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어민들과 연예인들, 관중들은 목소리를 합쳐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불렀다.

상봉모임에서 어민들은 자기들이 이북에 들어와 이르는 곳마다에서 동포애의 정 넘치는 뜨거운 환대를 받고 있는데 대해 감격에 넘쳐 말했다.

이남에서는 새우도 고기냐, 뱃놈도 사람이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사람이 되라고 이런 자리에까지 앉혀주시니 이것이 다 뉘 덕이겠습니까! 물밑에 들어간들 **김일성**장군님과 조선노동당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한 어민의 말이였다. 상봉모임에 참가한 모든 어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말이였던 것이다.

북남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터놓고 회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상봉모임은 참으로 의미깊은 것이였다.

입북어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동포애의 정은 시간이 가고 체류일정이 길어질수록 더 뜨거워졌다.

어느날 어민들은 평양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서는 거리건설장을 찾았다.

한창 건설중인 10리 구간에는 고층주택들이 꽉 들어차있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 공무원들에게 나라에서 지어주는 살림집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건설자들의 흥겨운 작업모습을 한동안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서있던 어민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을 다투어 일터에 뛰어들어 일손을 잡았다.

한 일군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기쁨이 듬뿍 배인 음성으로 그 장면을 기록영화로 찍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어민들의 작업모습을 찍어두면 그들이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조국이 통일된 다음 그들은 물론 모든 남녘땅 인민들이 눈물을 삼키며 뜻깊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민들의 장한 모습을 역사적 화폭으로 길이 남겨두시려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건설장에 도착한 도큐멘터리영화촬영가들은 어민들의 작업모습을 화면에 담기 시작했다.

자기들을 향해 촬영기가 사방에서 돌아가자 어민들은 더욱 성수가 나서 일손을 걸싸게 놀렸다. 건설장은 파도처럼 설레이고 용암과도 같이 들끓었다.

유선방송은 북남동포들의 활력있는 작업모습을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다. 휴식시간에는 북남동포들이 서로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동포애의 분출이였고 통일열망의 표출이였다. 촬영가들은 이 모든 감동적인 장면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화면에 담았다.

한 어민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도큐멘터리영화필름을 없애지 말아주십시오. 통일이 되면 가족들과 친척들을 평양에 데리고 와서 꼭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동포애의 정은 어민들의 귀환길에도 뜨겁게 미치었다.

그분의 배려에 의해 말끔히 수리된 배들마다에는 쌀과 부식물이 가득 실리었다. 그리고 부모, 처자, 친지들에게 줄 선물도 마련되어 있었고 가는 도중 고기를 잡아 회를 쳐먹을 수 있게끔 식초와 고추장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드디어 입북어민들의 귀환의 날이 왔다. 환송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원산, 남포, 해주 항은 석별의 눈물에 젖어 있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떨어질줄을 몰랐다. 떠나는 사람들도 울고 보내는 사람들도 울었다.

이별의 눈물은 상봉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지도 모를 일이다. 어민들을 태운 배들은 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며 남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무엇에 끌리운듯 배들은 얼마 못가서 돌아섰다. 어민들은 환송군중을 향해 손을 더욱 세차게 흔들며 외쳤다.

잘 있으라 형제들이여!

잘 가시라 동포들이여!

환송군중들도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다.

통일의 광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떠나는 사람도 이렇게 외치고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외쳤다.

어민들에게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였다.

배들은 다시 남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그러나 수평선너머로 사라지기가 그리도 아쉬운듯 배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돌아섰다. 이러기를 세번만에야 배들은 수평선너머로 사라졌다.

분단의 장벽을 사이에 둔 남북동포들의 석별의 정은 이렇게 뜨거웠다.

송시

기다림

꿈결에도 뵙고싶은 우리 장군님
기다림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기다림은 너무너무 강렬한 거야

해님같은 분이어서
해솟는 아침에 오시려나
하늘같은 분이어서
무지개타고 오시려나

해솟는 아침에 오시면
이 심장 환희로 불타올라
황홀한 노을주단 펼쳐드리리

무지개타고 오시면
이 한몸 불꽃으로 날아올라
환영의 축포로 터지리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의 심정인가
태양을 갈망하는
만물의 본능인가

아, **김정일**장군님 계시는 북녘을
해솟는 동녘인양 우러르며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경향의 민심, 남녘의 천심이여!

흠모

김정일동지의 영도사는 승리와 영광의 역사

인도와 에티오피아 신문이 특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돌에 즈음하여 인디아신문 ≪싸마츠 위까스≫6월호가 ≪사회주의 위업을 계승하시어≫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주석의 뜻을 받들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사회주의 조선의 운명과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각하의 영도사는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어오신 걸출한 사상이론가의 역사이다.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으로 독창적인 사상이론활동을 벌이시어 **김정일**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 시키시였다.

그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선대 수령의 사상과 진수를 고수한 과정이였고 시대의 변화발전에 맞게 새로운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완벽하게 밝힌 창조적 사색의 과정이였다.

이 과정에 **김정일**주석의 사상이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되고 그 모든 구성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되게 되였다.

김정일각하의 영도사는 조선노동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당,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희세의 영도자의 역사이다.

조선노동당의 역사에서 지난 35년간은 특히 자랑찬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

실로 그이를 떠나서 오늘 조선노동당이 지니고 있는 위력과 높은 권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김정일각하의 영도사는 조선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신 세련되고 노숙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의 자랑찬 연대기이다.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와 집중적인 고립압살공세 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강철의 의지와 뛰어난 영도력을 지니신 그이의 영도가 있고 그이께서 마련하신 반석 같은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김정일**각하의 지난 35년의 영도사는 세계 정치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다.

국제사회계는 **김정일**영도자께서 조선과 세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거대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시망발 용납할수 없다

오늘의 연단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5일~6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는 ≪연두교서≫라는데서 무분별한 대북강경발언을 연발해서 지금 이남의 정계, 사회계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아시다시피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날이 갈에 따라 더더욱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죠. 얼마전 이남의 여야개혁파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의원들은 지난 4일 오전 긴급모임을 열어서 이같이 결정하고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미국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써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 : 옳은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회 각계 단체들속에서도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대통령 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이북을 함부로 걸고들면서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부시는 무분별한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논평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느니 뭐니하고 ≪악의 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북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사실에 언급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9.11사태이후 일방주의적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테러지원국이라고 일방적으로 낙인찍고 위협이 다가올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망발을 늘어놓은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우리는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최대의 무기수출국 또한 미국임을 잘알고 있다면서 그런 그들이 안보를 떠들며 9.11사태와 전혀 관계도 없는 타국의 무기에 대해 선제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그들이 말하는 안보란 무기와 군대를 동원한 전쟁과 강압의 수사적 표현일뿐이라면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 민중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해당국가의 자주권을 말살해 결국 자국의 패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악의 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평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을 세계 인류앞에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은 북미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또한 앞으로 한미공조라는 미명하에 대북적대시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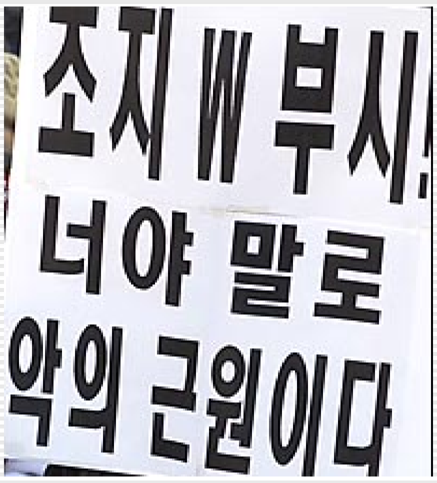
사회자 : 이런 성명은 다른 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한국청년연합회는 지난 2일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결코 묵시할수 없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시의 망언으로해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같은날 성명을 내 부시와 그의 참모들의 입에서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는 발언들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월 30일 성명을 통해 부시는 장소를 가리지않고 입만 벌이면 전쟁이요 뭐요하는데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전쟁생각뿐이라며 더욱이 지금처럼 전세계에 대한 협박과 전쟁을 운운한다면 미국에 파괴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호전광부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회자 : 특히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성명에서 부시가 이북을 대량파괴무기개발국가로 지목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데 언급하고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망언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부시의 망언의 심각성을 까밝히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통일연대가 발표한 성명은 부시의 망언은 첫째로 부시가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술책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대북적대적 입장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겨오려는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시의 대북적대적 발언은 남북관계진전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는건데 참으로 지당한 주장입니다. 성명은 계속해서 첫째로 세계평화위협전쟁을 계속 일삼는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것, 둘째로 미국이 제아무리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기운을 압살하려고해도 우리 민족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의지는 시대의 대세요 필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미대통령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우리 민중의 항변은 여느때없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데요.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간의 전쟁과 대결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호전광들의 책동을 용납하지 말고 반부시반미항전의 목소리를 계속 드높여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6일

부시의 호전적 망언을 규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부시의 호전적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부시가 집권후 연속 내뱉고 있는 부정적 망발은 조미사이의 대화분위기를 깨고 전쟁공포를 확대시키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부시가 북의 테러도발이니 뭐니하고 떠들면서 남북의 화해협력분위기를 돌려세우려 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국민들은 미국의 이러한 경거망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야말로 새 세기 첫해부터 전세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 있는 악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전세계민중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벌이며 평화를 해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쉼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하고 대북압살정책들을 내놓아 우리 민족의 사실상 자주통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지향을 간섭, 방해하지 말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힘을 앞세운 군사정책으로 자기의 패권을 지키려하지 말고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역사적 흐름에 미국이 계속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7천만 민중은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진보적 민중들과 함께 견결히 맞서 싸워 미국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여명의 의원,
부시 강경발언에 우려표명

민주당의 정대철, 김근태, 정동영상임고문과 20여명의 의원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시의 잇따른 강경발언은 한반도의 화해와 교류의 기본축을 탈선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행정부에 한반도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4일 16명의 여야의원들이 밝힌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반대구호에 찬성하며 민족자주권을 지키려는 모든 여야의원들과 행동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의 전쟁책동규탄
한총련

한총련은 1일 성명을 내고 부시의 분별없는 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미국식 일방적 군사패권주의를 계속 고수,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데 대해 이것은 이북과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선포선언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성명은 ≪악의 축≫이니 뭐니하고 이북을 걸고들면서 자기내 패권주의 미화에 혈안이 돼 근거도 없이 비이성적인 발언까지 남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공격이후 기세등등해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검증을 내세우며 한반도정세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가면서 한반도의 영구주둔과 한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데 대해 폭로하고 그러나 부시는 현실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부시가 주장하는 북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조미기본합의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망언은 그의 한국행각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총련은 부시의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해 한반도영구분열고착화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통일행진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하고 한총련이 부시행각시에 치밀어 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반드시 터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청년학생들과 함께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5일~6일)

한총련대의원 김수성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는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 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쏟아놓았다. 부시의 이같은 망발은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언이며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작태가 아닐수 없다.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는 곧 동족인 이남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이북에 대한 침략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전체의 평화에 대한 파괴로 되며 우리 민중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부시의 망발에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중은 양키침략자들에 의해 반세기이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면서 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격정에 목메어 천하가 동하도록 자주통일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성취할 것을 확약한 6월의 선언은 우리 민중, 아니 7천만 겨레의 트팀없는 자주통일의지의 포고였고 분출이였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앞으로 달리던 민족자주통일의 기관차에 제동이 걸리고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영구주둔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등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은 다시 단절의 아픔에로 퇴보해갔다.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암초에 부딪쳤으며 심지어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마저 빈 휴지장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분격할 사태앞에서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 정초부터 반미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렸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부시가 대북선전포고와도 같은 침략적 폭언을 하였으니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인가. 이 선전포고는 그대로 한 핏줄을 이은 우리 이남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침략도발이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부시의 망발이 머지않아 있게 될 그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부시의 방한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부시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의 자주통일의지에 대한 유린이며 민족의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 부시의 방한은 곧 민족공멸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하는 엄중한 형국이 닥쳐온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현정세는 각계 민중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용약 분기해 반부시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마땅히 부시방한반대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반부시반미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운동단체들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에 걸맞게 부시방한의 목적과 그 위험성 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대대적인 반부시반미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노근리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 등 여러 반미투쟁역량을 총집결해서 부시의 전쟁행각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야한다.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정파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한다.

이미 지난 2일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의해나선 여건에서 그들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전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친미사대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역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부시의 방한이 어제날의 식민지, 고요한 뒷동산에 대한 방한이 아니라 제놈을 맞아줄 졸개도, 발붙일 한치의 땅도 없는, 있다면 분노한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만이 꽉 차넘치는 땅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게 해야한다.

부시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온 국민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전쟁행각을 당장 취소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단체들, 부시의 대북강경망발 규탄성명발표

화제의 초점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6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청년연합회≫는 지난 1일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결코 묵시할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부시의 발언으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한다≫며 ≪부시는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국민의 저항에 접하지 않으려면 당장 자신의 발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부시와 그의 참모들의 입에서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발언들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성명을 내고 ≪부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만 벌이면 전쟁이요 뭐요하는데 머리속에는 온통 전쟁생각뿐≫이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전세계에 대한 협박과 전쟁을 계속 운운하게 된다면 9.11대참사와 같은 또다른 대형참사를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의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 등은 2일 서울 종묘공원에 모여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중연대와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700여명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사주하고 있다면서 부시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부시의 대북강경망발과 방한을 반대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민의를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대통령 부시는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북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선제공격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명나게 초강경 망발을 연속했습니다.

호전광부시는 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국가라고 비난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것도 모자라 사상최대의 국방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게다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생물무기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부시가 이런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북을 공격하겠다는 호전적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부시야말로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수 없는 세계최대의 전쟁광신자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지가 사설에서 ≪9.11사태가 부시에게 무제한의 사냥허가증을 주었다≫고 한 지적이나 영국의 ≪가디언≫지가 ≪미국이 9.11사건을 빌미로 단순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를 재판할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판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부시의 방한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극악한 호전광의 전쟁행각,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악독한 반통일행각, 한국을 영원히 속국으로 타고 앉으려는 흉악한 지배자의 침략행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각계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온 청산이 초토화되고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각계 민중은 부시의 방한이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더 강력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민족자주통일염원실현에 한사람같이 나서자

2.7반미구국항쟁 54주년에 제하여 (구국전선 2월 1일)

2.7반미구국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어언 5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2.7반미항쟁은 미국의 한국강점과 한반도의 영구분단흉계를 짓부수고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우리 민중의 강렬한 의지의 폭발이었으며 자주민족으로 살려는 애국적 의거였다. 조국광복직후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분단과 식민지군사기지화를 실현해 보려는 흉심밑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남북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는 남북민중의 일치한 염원을 가로막아 나섰다. 미국은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과도 배치되게 유엔에서 저들에게 추종하는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한반도문제에 관한 부당한 결정을 채택했으며 1948년 1월8일 이른바 단선을 감시할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서울에 끌어들였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서울입국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투쟁을 계기로 이에 청년학생, 농민, 지식인, 여성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이 호응, 동참함으로써 1948년 2월7일 거족적인 반미구국항쟁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항쟁자들은 경향각지에서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미군은 즉각 물러가라≫, ≪민주개혁 실시하라≫,≪민중을 학살하는 민족의 역적 때려부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업, 집회, 시위 등으로 과감히 싸웠다. 이 투쟁에는 연 2백만여명이 참가하였다.

2.7반미구국항쟁은 미국의 영구분단과 식민지군사기지화책동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중의 불굴의 의지와 기개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의로운 항쟁이었다.

2.7반미구국항쟁은 그후 4.3제주도반미항쟁과 5.10단선반대투쟁으로 이어지며 미국침략자들과 민족반역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2.7반미구국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날의 절규, 그날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 주한미군은 강점군, 침략군으로 남아있을 뿐아니라 북침새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다.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고 선언한 6.15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도 미국과 반통일분열세력들은 이북에 대해 ≪주적≫론을 고창하며 미일한공조체제, 전쟁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이 제창되고 있고 전쟁물자와 신형무기들이 반입되는 속에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들은 날을 따라 증가되고 있다. 현실은 미국의 영구강점분단책동과 반통일분열세력들의 반민족적인 외세의존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54년전 그날의 애국선열들처럼 분기하여 과감히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각계층 애국민중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전쟁공조체제의 분쇄, 반북고립압살책동의 중단,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등을 요구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싸워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의 왕초

오늘의 연단 (구국의 소리 2월 4일~5일)

대쪽이라는 이름은 한때 이회창에게 붙었던 이름이다. 그가 부정비리를 모르는 원칙있고 청렴결백한 법관이라는 것이다. 그런 소문이 한국사회에 돌아가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과거와 현재를 따져보면 썩은 내가 진하게 풍기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그가 앞에서는 원칙과 법치주의를 광고하면서 뒤에서는 별의별 부정비리와 부정부패행위를 다해왔기 때문이다. 법관의 감투를 썼던 시기에만 놓고봐도 그렇다. 그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나선 애국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투옥하고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우면서도 절도나 폭행 등 일반사범들에게서는 위협, 공갈, 회유, 협박의 방법으로 돈을 빨아냈다.

그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라는 말로 일반 기소자들을 강박하면서 죄를 삭감시켜주는 댓가로 거액을 요구해 부정착복하곤 했다. 당시 이회창의 손탁에 걸렸던 사람들은 돈을 빨아내는 그의 교활성과 악랄성, 무한정 요구하는 큰입에 지금도 혀를 차고 있다.

법관노릇을 하면서 돈맛을 톡톡히 들인 이회창은 정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며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안기부부정대출사건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19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였던 이회창은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83명의 신한국당패거리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기는 거액을 갈취했다.

감사원장 시기에 율곡비리와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를 맡아하면서 관련자들로부터 사례금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고 사건처리를 흐지부지시킨 경험이 있는 그로써는 그쯤한 돈은 세발의 피로 생각했다.

이외에도 그는 이회창후원회를 통해 돈을 합법적으로 걷어들이고 있고 정권인수쯤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혁신위원회를 다른 하나의 돈줄로 써먹고 있다.

이회창이 지난해 2월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생가복원을 한 것은 그가 부정축재한 돈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였다.

한나라당소속의 임모씨가 ≪지금 대다수국민이 돈이 없어 어렵게 살고 있는 때에 거액을 들여 사람도 살지 않는 집을 무슨 생가라며 복원하는 것은 썩은 정치인의 나태한 행태≫라고 비난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회창이 부정비리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각계의 요구에 정면 도전해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선거자금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해서 그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밝힐 것이 없다고 뻗대다가 보복은 보복, 피는 피를 부른다고 괴성을 질렀던 것이다.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 하겠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도 무색할 지경이다. 온갖 비리로 부정축재를 하고 사리사욕에 참견하면서 오히려 보복이니 피니 하며 날뛰는 이런 뻔뻔스런 인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썩은 정치인이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각계 민중은 대권야망을 이루어 더 큰 부정축재를 노리는 이회창을 당연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못된 놈은 사라져야 한다

서울시민 신용대 (구국전선 주체91년 2월 1일)

요즘 항간에는 ≪못된놈 사라져≫라는 노래가 유행되고 있다.

나도 그 노래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다.

가사는 주인공 못된 놈이 누구라는 것을 지칭하지 않았어도 대권에 미쳐 온갖 못된 짓만 하며 돌아치는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가리킴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사람이 공인하다시피 법관출신의 이회창은 자신을 이른바 ≪대쪽≫으로, 대바른 정치인으로 표방하면서 민심낚기에 혈안이 되어 동분서주하지만 실은 민족도, 동족도 모르는 천하불량아이며 통일이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반통일역적이다.

회창은 이북 서흥출신으로서 왜정때 그 애비는 포악무도한 일제의 주구가 되어 독립운동자, 애국자들을 탄압해 온 친일역적이었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회창은 광복후 재빨리 미국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대법관이 되어 미국식민지통치유지에 적극 협력해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해 왔다.

지금은 대권에 미쳐 자기 출신지마저 이북이나 예산이 아니라 서울로 둔갑시키는 저능아이며 대북문제, 통일문제에서 한미일공조니 상호주의이니, ≪주적≫이니 하면서 민족과 동족 앞에 온갖 못된 짓만 하고 있다.

이런 자가 이 하늘아래 우리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요, 더욱이는 그가 대권을 노려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반통일역적 이회창은 꺼져야 마땅하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6일

김정일총비서의 문헌집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문헌집 ≪주체의 혁명전통에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49(1960)년 10월부터 주체90(2001)년 5월까지의 기간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밝혀 주신 34건의 로작들이 년대순에 따라 수록되여 있다.

그 가운데에는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데 대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등이 들어 있다.

문헌집에 수록된 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의 본질과 내용,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밝혀 져 있다.

혁명실록의 위대성에 대한 전국연구토론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이의 혁명실록의 위대성에 대한 전국연구토론회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정하철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실록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론증한 8건의 연구론문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실록에서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으신것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강성대국건설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대담한 령도력과 무한한 헌신성으로 이 땅에 찬란한 강성대국건설시대를 펼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은 백두산혁명강군을 건설하시고 군력으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신데 있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벌어 졌던 조미대결은 그 어느 세계대전과도 대비할수 없는 준엄한 결전이였으며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으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총 한방 쏘지 않고 거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토론자들은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준전시선포와 관련한 최고사령관명령 하달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선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성명 발표와 같은 초강경대응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하는 미제의 기를 꺾고 전쟁도발기도를 단호히 분쇄해 버리시였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그이께서 세계외교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진두지휘하신 선군외교전법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그이의 위대한 선군령도따라 우리 나라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신데 대하여서와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추동하여 오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혁명실록은 한 나라, 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백전백승하게 하는 사상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정신과 투쟁방식, 경험이 집대성되여 있는 백과전서, 영원한 승리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바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가 5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서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출연자들은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100프로 옹호고수하고 100프로 계승하며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발표회에서는 특히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총대중시사상, 총대철학을 내놓으시고 인민군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붉은기를 굳건히 지켜 주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을 국가표창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경비대 박대성소속부대 초기복무사관이였던 리광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홍병찬소속부대 사관 박승철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리광수와 박승철은 군사임무수행중 한 생산건물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화재가 일어 난것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불길속에 뛰여 들었다. 리광수는 숨 막히는 화염속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를 모두 안전하게 모셔 내오고 최후를 마치였다.

수여식이 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병호 등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리광수가 소속되여 있던 구분대를 리광수구분대로 할데 대한 조치에 따라 수여되는 그의 이름이 새겨 진 기발도 전달되였다.

미군강점합리화하는 미국보수세력규탄
로동신문

≪로동신문≫ 6일부는 우리의 그 무슨 ≪군사적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걸고 들며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을 합리화해보려 하고 있는 미국보수세력들을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아무러한 론리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명백히 우리 나라나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조선반도의 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켜온 장본인은 바로 미국과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여느때없이 반미기운이 높아 가고 있다. 미국보수세력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 가는 반미기운을 그 어떤 ≪위협≫설로 눅잦히고 계속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영구히 틀어 쥐자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난다면 인차 세계적판도에로 그 불길이 확대될수 있다.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할것이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미국이 계속 조선반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손을 떼지 않는다면 어느 때 가서든 그 화를 톡톡히 입게 될것이다.

태평양지역 미군 총사령관의 폭언
조선중앙통신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4일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블래어가 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압살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는 조선에 테로분자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나라의 감투를 씌우고 ≪미국이 북조선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것≫이라느니 ≪북조선을 주시하는것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선을 적대시하는 망발을 늘어 놓았다.

부쉬가 조선을 테로와 억지로 련결시켜 힘으로 압살하려는 폭언을 늘어 놓은데 뒤이어 블래어가 줴친 망발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

미국은 자기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무모한 군사적압살기도를 버려야 한다.

선제타격을 노린 유사시법제기본방침
민주조선

일본정부가 얼마전에 작성발표한 ≪유사시법제에 관한 기본방침≫에 ≪무력공격에 도달하지 않는 단계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쪼아 박아 넣었다.

≪민주조선≫ 6일부는 이것은 그들이 ≪유사시법제≫정비놀음을 벌리고 있는 진짜속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자기들의 안전과는 상관 없는 국제문제들까지 ≪유사시≫대상에 포함시키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별다른 구실이 없이도 임의의 순간에 ≪자위대≫를 출동시켜 해외침략전쟁을 도발할수 있게 된다.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에 불타고 있는 일본반동들은 우리안에서 뛰쳐 나와 재침의 칼을 휘둘러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지난 날 아시아를 피로 물 들이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일본반동들이 선제타격권까지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아시아에서 또 한차례의 재난을 몰아 오려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아시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며 현대의 특등가는 범죄자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내달리는 재침책동의 그 길에 파멸의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조직영도

위대한 **김정일**동지 혁명역사강좌 제165회 - 학사 김장호선생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주체91년 2월 6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운동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게 됐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 수십년동안 사회주의건설을 영도하여온 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으며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것과 같은 가슴아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마치도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사상적 혼란과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것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러면 그이께서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어떻게 벌리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선 사회주의운동을 새로운 기초위에서 재건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과 교훈을 명확히 밝히시고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에 관한 사상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것은 역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볼때에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역사발전의 방향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좌절을 사회주의의 이념과 직결시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말살하려는 온갖 반동적 시도를 짓부실 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에 밝혀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사람중심의 이념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물질경제중심의 원리에 기초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건설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에 주의를 적게 돌렸습니다. 그러다나니 전진도상에서 애로와 난관에 부딪히자 인민대중의 혁명의식과 창조력을 발양해서 진로를 개척해나갈 대신 신념을 잃고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은 또한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적 번영에 대한 환상과 제국주의 반동의 압력에 굴복한데로부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똑똑히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근본원칙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노동계급의 영도,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고수, 철저한 반제적입장의 견지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은 또한 사회주의나라 당들 사이의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적 압력과 사대주의적인 복종의 관계가 지배한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역사적 교훈은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된다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현실에 의하여 이미 확증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운동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례없이 높아집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이 사회주의의 물질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며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에 관한 사상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혁명투쟁에서 물질경제적 요인을 기본으로 본 선행이론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데 기초하여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재건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셨으며 사회주의 이념자체를 말살하려고 온갖 궤변을 퍼뜨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그 파산을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재건을 위하여 다음으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의식화과정을 부단히 촉진시키셨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공세앞에서 사상적 동요와 혼란으로 모대기는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투쟁의 길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의식화사업을 위한 대외선전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규모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들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급속히 파급되였는데 주체80(1991)년에만도 1만 7천여부의 노작이 발행되고 54개 나라들에서 144종의 출판물이 1억 545만 7천여부나 발행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십개 나라들에서 159종의 출판물에 게재되였습니다. 또한 고전적 노작에 대한 토론회, 연구모임, 강연회 등이 진행되었는데 주체81(1992)년에만도 토론회, 강연회가 64개 나라들에서 175회나 진행되고 주체82(1993)년에는 69개 나라들에서 202회나 진행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의식화과정을 부단히 촉진시켰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세계 많은 나라 정치활동가들과 국가 및 당 지도자들, 진보적 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현실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으로 무장시키는 한편 여러 경축행사들인 조선인민군 창건 60돐, 조국해방전쟁 승리 40돐 행사들에 참가시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동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으며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조성된 사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투쟁강령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많은 당 대표단들이 오는 계기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투쟁강령으로 ≪평양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역사적인 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선언≫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1(1992)년 4월 20일에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발표되게 되였습니다.

≪평양선언≫에는 우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이 정확히 분석되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체의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 것,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관철해나가야 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높이들고 나가야한다는 것, 모든 당들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동지적 단결과 협조, 연대성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평양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사회주의이념에 충실하려는 위력한 역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에 선포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는 의연히 살아있으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인류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던 진보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떠들어대던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혁명적 당들은 평양선언을 ≪새로운 공산당선언≫,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문건≫, ≪혁명적 당들이 나아갈 행동방향을 규정한 지도적 지침≫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에 연이어 서명하였습니다.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은 채택당시에 70개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250여개에 이르렀습니다.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들은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연맹 볼쉐비크 공산당과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 마이자르 사회노동당, 볼가리아 공산당-맑스주의자, 로므니아 새 사회당을 비롯하여 동유럽 나라의 많은 정당들이 평양선언을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우고 당활동에 구현하여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 있습니다. 세계 혁명적 당들은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단결, 협조, 연대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양선언이 발표된 4월 20일을 매해 각국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성의 날≫로 정할데 대한 일치한 염원을 표시하였습니다. 오늘 세계 진보적 정당의 당수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저명한 활동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칭송하면서 장군님을 중심으로하여 사회주의 역량과 반제자주역량의 단결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가 선망하는 21세기의 지도자로, 행성의 최고 최강의 영도자로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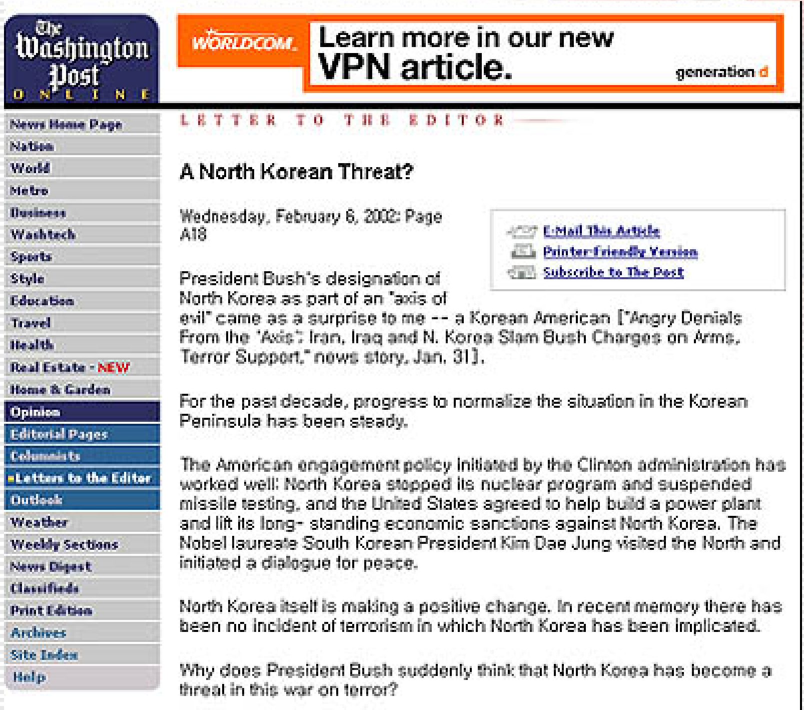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밑에 좌절과 진통을 겪던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을 새로운 과학적 기초로 하여 재생재건의 길에 더욱 확신성있게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시 발언 반대≫ 미국교민들도 나섰다

신문투고, 항의편지보내기운동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적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한 미국 교민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월6일자 ≪워싱턴포스트≫에는 부시의 발언의 비판하는 한 재미교포의 독자투고가 실리기도 했다.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Letter To The Editor)≫에 ≪북한이 위협적이라고?(A North Korean Threat?)≫란 제목으로 실린 이 글에서 포토맥에 거주하는 교민 최승홍 씨는 ≪북한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왔고 최근 북한과 관련된 테러도 없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The Washington Post ONLINE

WORLDCOM. Learn more in our new VPN article. generation d

News Home Page
Nation
World
Metro
Business
Washtech
Sports
Style
Education
Travel
Health
Real Estate - NEW
Home & Garden
Opinion
Editorial Pages
Columnists
Letters to the Editor
Outlook
Weather
Weekly Sections
News Digest
Classifieds
Print Edition
Archives
Site Index
Help

LETTER TO THE EDITOR

A North Korean Threat?

Wednesday, February 6, 2002; Page A18

E-Mail This Article
Printer-Friendly Version
Subscribe to The Post

President Bush's designation of North Korea as part of an "axis of evil" came as a surprise to me -- a Korean American ["Angry Denials From the 'Axis': Iran, Iraq and N. Korea Slam Bush Charges on Arms, Terror Support," news story, Jan. 31].

For the past decade, progress to normalize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teady.

The American engagement policy initiat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s worked well: North Korea stopped its nuclear program and suspended missile testing,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help build a power plant and lift its long- stand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Nobel laureate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 visited the North and initiated a dialogue for peace.

North Korea itself is making a positive change. In recent memory there has been no incident of terrorism in which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Why does President Bush suddenly think that North Korea has become a threat in this war on terror?

2월6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재미교포의 독자투고

교민단체, 부시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방한을 앞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교민들이 중심이 돼 부시 대통령에게 항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한인교회와 통일단체 등에서 시작된 편지보내기 운동은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L. A, 뉴저지, 미시건, 시애틀, 워싱턴 등으로 미주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평화주의단체인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 tee에 소속된 미국인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편지 보내기 운동을 주도한 이덕문(미국명 Grace Weiner) 씨는 7일 오전(현지시각 6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듣고 햇볕정책이 어렵겠다 싶어 고민하다 편지 보내기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편지 보내기 운동은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박사가 쓴 편지 원문에 서명을 해서 보내거나 직접 쓴 편지를 개별적으로 백악관에 보내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첫 서명 운동이 이뤄진 건 지난 3일 오레곤주 한인순교자천주교. 강영돈 신부는 미사 후 광고를 통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인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당부했고 그 자리에서 50여명이 서명했다.

이미 오레곤주에서만 70여 통이 발송됐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 120여 통의 편지가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팩스를 통해 편지 보내기 운동 취지를 알리는 글과 편지 원문을 L. A, 뉴욕, 뉴저지, 시애틀, 워싱턴D. C 등의 한인교회와 교민단체, 여성단체, 교민신문 등에 계속 보내고 있어 편지보내기운동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운동 미주공동대표이기도 한 이덕문 씨는 ≪부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가로막는 건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거나 자신들의 식민지로 여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교민들의 작은 노력이 부시 대통령 발언에 반대하는 국내 단체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시연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07

불교계 17개 단체, 부시 방한 관련 시국선언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오는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연일 각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인 불교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행동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7일) 오전, 만해 교육관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교수불자연합회 등 17개 단체들이 뜻을 모은 ≪부시 방한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단체 시국선언≫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으로 불교 단체들이 한데 뭉쳐 시국선언했다.

특히 미국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불교계에서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이번 부시 방한에 대한 우려를 전면에 표명한 셈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교수는 여는 말로 ≪그간 불교인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시의 발언을 규탄하는 진관스님

것에 대해 반성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번 부시 방한과 관련해 시국 선언을 통해 불자들이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 스님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김대중 정부의 평화 의지 발표와 민족 공멸을 부추기는 일부 보수 언론, 야당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시국 선언을 시작으로 이들 불교단체들은 18일 ≪2002 한반도 평화 선언 참가≫, 19일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 단체들이 연대해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인대회≫(가칭)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효숙 기자
유뉴스 2002/02/07

≪동맹의 허상≫을 짚을 때다

김민웅(재미언론인) 2002년 2월 7일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동맹인가

미국은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군사비 증액 요구를 골자로 한 2002년도 연초 국정연설에서 밝힌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과 ≪선제 공격론≫은 적어도 우리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매우 명백하게 일깨우고 있다.

첫째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간 냉전체제 청산의 노력을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군사적 지배대상으로 남아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사안은 대북 관계에서 이른바 한미 공조체제의 균열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사안은 미국의 주도에 의한 한반도 긴장고조로 압축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 부시정권이 이 모든 반 평화적 사태전개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우리의 민족적 이해관계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부시 발언에 대한 과잉반응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관계를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틀로 보지 않고, 서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통일국가로 발전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 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과 북 사이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서 군사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가운데 평화적 질서가 중심이 되는 미래를 상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호군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정권은 군사적 해결의 방식에 철저하게 우선권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 일조를 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무장력 강화, 그리고 민족경제에 지대한 부담이 될 군비경쟁의 위험에 우리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각종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민족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세계 전략적 목표가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충돌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정상적 진로에 부당하게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비켜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미 공조 조율≫ 운운의 논리는 따라서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도 돌리는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미국의 진로 방해가 가능하지 않도록 반외세 반패권적 자세를 강력하게 가지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에 있을 뿐이다. 이 충돌의 현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평화적이고도 자주적인 입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인가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위 대북 공조용 한미 관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의 기존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미국이 우리민족의 냉전체제 해체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우리와 미국은 동일한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국가적 이익이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의 관계, 즉 ≪적(敵)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소위 대북 공조용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지점에 우리가 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적 야망을 위해 우리 자신이 희생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 부시정권과의 대결까지지도 결연히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대결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굴종과 항상적 전쟁의 위기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엄청난 민족적 단결에 기초한 평화의 진전과 민족 자주의 공간확대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다.

이번 부시 발언이 미치고 있는 충격파의 가장 극명하고도 놀라운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 안전과 생명에 미국의 정책과 자세가 최대의 장애이자 위협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한국 대중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이다.

전쟁의 위기는 남북간 대결구도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체제에 대한 격렬한 저항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정치세력이 날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로, 남과 북의 화해와 단결은 미국의 부시 정권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자신의 세계전략을 가로막는 사태진전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남북 결속이 더 강화되기 전에 이 결속의 고리를 약화 내지는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실패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한, 미국은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회창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딕 체니 부통령과 만나고 있다(1.24)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공세적 접근,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주의적 노선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그와 함께, 실질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별도로 한반도 민중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패권체제 유지 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공조≫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미 패권정책의 내부 동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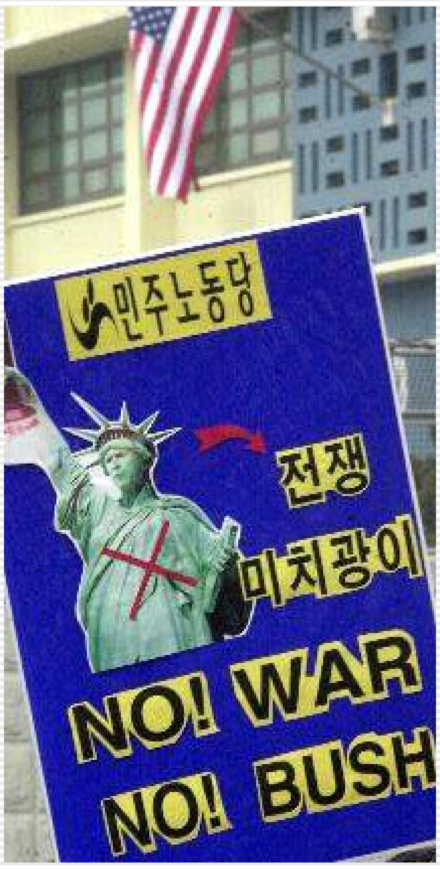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미국 행각에서 보인 태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순응 내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사를 밝힌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미국의 대자본이 요구하는 논리에 선도적으로 화답한 것은 이미 지난 1997년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IMF와의 재협상론에 격렬한 반발을 했던 것에서 확인되었던 바이며, 대북 적대적 군사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점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진작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반대≫ 등 최근의 여러 발언에서도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미국의 패권정책은 언제나 그 대상국가 내부에 적극적 동조자를 물색하고 그를 권력의 정점에 세우기 위한 정치공작에 몰두한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지난 반세기의 미국 대외정책사가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는 역사이다. 미국 부시정권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그러한 각도에서 제국의 대본영과 그 식민지 체제의 하부구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그 지지세력의 집권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회창 총재만이 아니다. 오늘날 대권주자로 운위되고 있는 민주당의 인물들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전쟁정책과 제국주의적 패권질서에 분명하게 맞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 지배에 저항하면서 민족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적 본질에 대한 비판의식을 정치적 선택과 행동으로 연결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무엇보다도 민족전체의 안보를 최선으로 여기는 정치역량이 낮은 수준에 있거나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을 말해준다. 정당개혁이나 기타 대선을 향한 움직임은 모두 절차와 제도, 그리고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절박한 처지에 빠진 민족현실을 구하려는 본질적 과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철저하게 왜소화되어 있고, 강대국의 논리에 눈치를 살피는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4면으로 이어집니다. ➡



8.15 방북대표단에 유죄선고

≪2001 민족통일대축전≫방북대표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지방법원 417호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대표단 6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민족통일 대축전의 여파로 통일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한국사회에 혼란이 조성됐다≫고 지적한 뒤 ≪범민련 규약개정을 위한 회합이 애초에 허용된 모임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선고의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현행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형 선고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막식 참가와 범민련 규약 개정을 위해 회합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유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족통일대축전의 과정에서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남북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참작한다≫고 전제한 뒤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 후, 대표단들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유죄 선고와 민족통일대축전에서의 활동에 대한 유죄 선고에 유감을 밝히며 향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아리랑축전 참가로 상이군경이 민족화해에 앞장설 터

7일 오전 11시 여의도 기계회관 신관 8층 동락회사무소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주최 ≪아리랑축전 참가단 준비위원회(가칭)≫(아리랑준비위) 결성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아리랑준비위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아리랑준비위는 ≪교착되어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에서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아리랑축전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아리랑축전 참가단 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리랑준비위 윤재철 위원장은 결성 취지문에서 ≪아리랑은 남과 북을 포함한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공인하는 ≪민족의 노래≫이고 이 아리랑이 남의 월드컵과 북의 아리랑축전에서 불려지게 된다≫면서, 이는 ≪남북이 전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철 위원장은 아리랑축전 참가 목적에 대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의 성격 △한국전쟁 상이군경인들의 화해의 의미 △월드컵과 아리랑축전 개최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림 △지역 전통 아리랑 기능자들과 연구자들의 교류 실현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대전기를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윤재철 위원장은 ≪이 목적에 함께 하고자하는 일반인, 종교, 사회단체, 정당의 참여≫를 기대하고, ≪북한당국에는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모임 갖기≫를 제안했다.

아리랑준비위는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상임고문 송철원)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승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회장 윤재철,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부회장 장승학 등과 함께 논의하여 결성하게 되었다.

한편, 아리랑준비위는 4월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앞서 4월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월드컵과 아리랑≫ 및 ≪통일아리랑축제≫를 전국 각지와 판문점 또는 망배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취지문 발표와 경과보고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아리랑준비위측은 ≪우리도 언제까지 극우단체로만 있을 것인가?≫하고 자문하면서 ≪북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인 우리가 화해한다면 다른 계급계층은 저절로 화해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13면에서 이어집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실현이 최선의 해결책이자 기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미국은 지금과 같은 전쟁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적어도 우리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동맹이 아님을 정치권은, 오해가 불가능한 명백한 표현으로 선언해야 한다.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막는 미국의 ≪북한 몰아대기≫ 또는 ≪때리기≫에 공조할 수 없으며, 그 결과인 전쟁의 참담함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에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종속적 보조세력으로 남아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이토록 압박해 들어오면 미국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적(敵)이 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간접적 차원의 시사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의 제1차적 수행기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미국의 전쟁정책을 말로만 반대한다고 해서 어디 그 발언에 실질적인 무게가 실리겠는가? 이것은 미국의 전쟁정책을 교정해내기 위한 압박용 외교전략으로 필요한 공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상적 긴장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인 작업이 된다. 한반도 전체의 군사정책을 지휘하는 본부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 그 본부의 결정 밑에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산하는 과정 없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안보는 없다.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주한미군의 통일 이후 주둔까지 용인하는 발언들이 심심치않게 들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장 결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소치에 불과하다.

셋째, 대북한 지원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금강산 사업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식량과 전력, 그밖에 북한의 경제회복과 남쪽 경제의 활력을 결합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민족경제 수립방안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제봉쇄의 고난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여는 작업에 남쪽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 남북간 민족단결과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기운의 융성은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써 미국의 전쟁정책은 더 이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최선의 계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실현≫이다. 그것은 어느 한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돼서는 아니 되며 답방 자체가 해결을 보장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따라서 그 내용의 진전을 위해 이 일은 각계 각층의 총체적 공동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의 답방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민족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거족적 조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분위기 진작과 각종 제도적 법률적 장애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북간 수장(首長)의 만남도 이루지 못한다면, 외세가 우리 민족의 생명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부디, 우리 민족 전체의 깨어남과 민족의 생명에 대한 절절한 결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의 차이에 대하여 (2)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주체 91년 1월 25일)

마지막으로 한호석소장의 논문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2001년 10월 19일)에 나오는 관련 부분이다.

≪남(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을 한꺼번에 완수하면 더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현 시기 친미예속적이고 반민주적인 집권세력과 민족민주전선 사이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그 전략적 과업은 민족민주전선이 설정하는 두 개의 연속적인 단계, 곧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될 것이다. 단계적 수행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두 단계가 분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1980년대까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단일한 내용으로 파악하면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으로만 이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발전된 정세에 맞게 그 개념을 두 가지로 가려보면서 그 내용을 일반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로 구분한다.≫

≪전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지난 시기에는 민주강령을 실현하는 변혁의 과정을 구태여 두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북(조선)의 경우,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강인하게 단련된 주체역량이 자기의 주위에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강력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945년 직후의 전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개조・변혁하는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급속도로 수행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북(조선)의 혁명역량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1970년대에는 마침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1990년대 이후의 남(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지배적이고 고착된 자본주의 사회로 변동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개조・변혁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주체역량(민족민주전선역량)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민주강령을 실현하는 변혁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당면해서 수행해야 할 민주강령의 전략적 과업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곧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물론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층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곧 민중 민주주의에 앞선 선행단계로서, 또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체제를 민중 민주주의체제로 개조・변혁하는 중간과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자명하다.≫

≪두루 알려진 대로, 일반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는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을 비롯한 기층민중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사회・정치적 권리가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는 소수의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남(한국)의 근로대중 전체가 누리는 사회・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남(한국)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서 나온다.≫

≪민주변혁역량의 중심동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되어 그 전선을 주도하는 남(한국)의 기층민중(노동대중과 농민대중)에게서 나오고, 그것의 보조동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된 남(한국)의 중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에게서 나온다.≫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한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 요구는 기층민중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약하거나 짓누르고 있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거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장치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파쇼정권이 사라진지 오래 된 오늘에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파쇼억압체제의 유산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 민주주의체제와 파쇼억압체제의 유산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남(한국)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단계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청산하여 정부와 의회를 기층민중의 정부와 의회로 교체・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이 근로대중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근로대중과 함께 대중적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이 근로대중과 함께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투쟁을 전개하면서 집권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장성하는 단계다.≫

≪그런데 지금 소자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권층 개혁세력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불안정한 기조 위에서, 매우 불철저하게, 그리고 파행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 정세의 기본성격은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 사이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이 정치권 안에서 벌이는 타협과 정쟁으로 혼탁하게 얼룩져 있다. 개혁정세의 불확실성은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취약한 역량을 지닌 집권층 개혁세력이 파행적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이 강하다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로 진입하여 짧은 기간 안에 완수하였을 것이며 연속하여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1단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자산계급에 기반을 둔 집권층 개혁세력이 민주주의혁명의 1단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장악해 버렸다.≫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층민중과 중간층을 망라하는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자기의 전선에 총집결시켜야 하며, 그 힘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해야 한다. 이 정당은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두 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

→

광고

인터넷 애국의 길
www.jajoo.fu.st

태양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민족최대의 명절이며 인류공동의 경사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태양절≫ 89돌을 경축하여 홈페이지를 새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나 빠른 시일내에 완성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하시는 많은 동지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주체90(2001)년 4월 15일
애국의 길

여 복무하는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다.≫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는 북(조선)에 대한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적대・말살정책이 파탄되면서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정세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남북 정부당국 사이의 적대관계가 비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통일전선으로 발전하여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정세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민족민주전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화・발전될 것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중간층의 동요와 이탈을 막고 그들을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단계로 동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가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연속해서 상승・발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연속해서 상승・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민족민주전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에 이르면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인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의 전일적이고 고유한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화・발전될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의 수행정도가 진척되는 것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범위와 속도가 정해지게 된다.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수탈체제가 주한미군 철퇴로 치명타를 맞게 되면, 그에 따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권력구조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흔들리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권력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에 집중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1단계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연속적으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민주주의 혁명의 전진궤도로 급속히 진출할 것이다.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민주주의 혁명과정은 곧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며 2004년에는 총선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올해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 다음 총선에서 의석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일반민주주의실현의 여부와 속도가 좌우된다. 전위당의 문헌과 주요논문들, 그리고 향후 정치일정을 검토한 후에 내린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민주주의실현은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을 철폐시키며 초보적인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철폐는 일반민주주의실현의 핵심과제이다. 국가보안법철폐는 국회에서 실현된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되면 국가보안법은 철폐된다. 이러한 견해가 의회투쟁을 절대화하며 대중적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비록 현재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수라고 하여도 광범한 국민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동원한다면 국회는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철폐가 다수결로 통과되는 것은 민주연립정권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민주연립정권이 수립되지 않고서도 국가보안법철폐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족민주세력의 당면전취목표는 일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민족민주세력의 당면전취목표는 개혁적 민주세력과 연합하여 민주연립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며 일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민족민주세력의 당면전취목표를 민주연립정권수립이라고 한다면 민족민주세력은 올해 대선에서 국가보안법개폐를 강령으로 하는 개혁적 민주세력의 집권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는 곧 지난 선거 시기에 출몰하곤 하였던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으로 될 것이다. 우리의 선거에서의 목표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추진하면서도 개혁세력과 연대하며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후보를 고립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민주세력의 당면전취목표를 민주연립정권으로 한다면 개혁세력이 향후 반드시 여당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장 집권할 수 없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보다 당선가능한 개혁세력을 밀어주어야 하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도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그 민주연립정권의 역할, 곧 일반민주주의실현에 실질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세째, 민주연립정권이 수립되면 일반민주주의실현은 보다 철저히 수행된다는 점이다.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건은 올해 대선에서 개혁세력이 집권하여야 한다. 둘째 조건은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야 한다. 세째 조건은 차기총선에서 진보정당과 집권여당의 통합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세째 조건만 이루어지면 일반민주주의는 실현된다. 세 조건이 모두 이루어져 민주연립정권이 수립되면 일반민주주의실현이 더욱 폭넓고 속도 있게 수행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조건에서 집권여당이 민주연립정권을 제안할 리 만무하지만 만약 진보정당이 적지 않은 의석을 차지하고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의석과반수를 필요로 한다면 경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진보정당이 하루빨리 원내에 진출하고 일정한 의석수를 차지하여야 할 이유이다.

네째, 일반민주주의실현은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민주주의실현의 핵심과제를 국가보안법철폐라고 할 때 현정권하에서도 이는 가능하다. 현정권은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국가보안법개폐를 비롯한 일반민주주의적 개혁성을 가지고 있다. 민족민주세력이 광범한 대중을 국가보안법철폐투쟁으로 조직동원한다면 국회는 결코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철폐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교차투표가 이루어지면 국가보안법은 철폐될 수 있다. 더욱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이 실현된다면 반국가단체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조항이 반통일악법으로서의 핵심조항이라면 찬양고무조항은 반민주악법으로서의 핵심조항이다. 이 두 조항이 폐지되면 이남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이는 일반민주주의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